



사진 왼쪽부터 17일 낮 광주시 장동 '오월 어머니집'을 방문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과 이날 오전 5·18 묘지를 참배하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오후 조선대에서 '5·18과 민주화, 평화'를 주제로 특강하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전남대 평생교육원 초청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내명기자 mjna@kwangju.co.kr

범여권 '勢싸움 場'된 5·18 광주

광주에 모인 汎與 대선주자들, 호남 민심잡기 '각개약진'

5·18 광주민중항쟁 27주년 기념일을 맞아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향도(嚮導)'적인 광주로 일제히 집결했으나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각개약진'에만 주력했다.

이번 5·18은 범여권에 연례 기념행사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무너진 지지기반을 바로 세우고 지지부진한 범여권 통합논의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는 모멘텀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호남선'을 타고 한 자리에 총집결한다는 점에서 통합논의의 이상적 모델로 거론되는 '연석회의' 또는 '원탁회의' 구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광주'라는 한 공간에 머물며 5·18 정신의 계승과 대통합의 당위성을 호소하면서도 한 자리에서 만나지 않았다.

범여권 후보들을 한 군데 모으려 했던 5·18 연석회의나 원탁회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5·18은 통합은 커녕 오히려 분열상만 노출하는 계기가 될 공산이 커졌다.

김근태 전 의장은 이날 광주시민 주먹밥 나누기 자원봉사와 5.18 전야제에 참석한 뒤 자신의 광주·전남지역후원회장을 지낸 지선스님이 있는 장성 백양사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김 전 의장은 17일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탁회의와 5·18묘지 공동참배가 무산된 것을 의식한 듯 "민주주의와 민주세력의 위기이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20주기 추모제와 오월 Y시인포럼에 잇따라 참석했다. 그는 이날 "5·18 정신이 5·16 후

계 세력에 의해 짓밟힐 수는 없다. 5·16의 쌍생아인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표와 미래를 두고 토론하고 싸우겠다"며 한나라당 두 대선주자를 정조준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7일 조선대 학생들과 이 지역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잇따라 특강을 갖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 정책과 '남북 경제협력 10개년 계획'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영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진정한 5·18 정신은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이라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양당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조선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강한 뒤 18일 기념행사

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학규 의원은 18일 당일 광주로 내려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5·18 전야제에 참석하고 이튿날에는 5·18 공식 기념행사와 한·미·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시국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손 전 지사와 정 전 의장, 천 의원은 모두 18일 오후 광주 CGV에서 열리는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손 전 의장은 '조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7일 오후 5·18 묘지를 찾아 묵념을 하고 있다. /내명기자 mjna@kwangju.co.kr

박근혜 "원론적 검증 요구가 왜 네거티브냐"

소속도 방문 한센병 환자 위문...5·18 민주묘지 참배도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17일 대선 후보자 검증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공방과 관련, "필요하나 아니냐 질문해서 누구나 예외없이 원론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그게 왜 네거티브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순천에서 가진 '섬진강 포럼'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두 번의 대선 패배가 박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검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거티브 때문'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자들이 만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저도 질문해도 되죠. 검증이 필요하나 아니냐 한 번 대답해 보세요"라고 반문한 뒤 한 기자가 "검증은 필요하죠. 저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니까"라고 답변하자 "그 대답은 저쪽 진영의 논리에 따르면 네거티브"라며 이 전 시장 측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발언은 자신의 원론적 검증 요구를 이 전 시장 측이 네거티브로 몰고가는 있다고 성격 규정을 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선을 공방이 매듭지어진 후 첫 지방 방문지로 광주와 전남을 선택한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여수에 도착한 뒤 고흥 소속도로 이동, '소속도병원 개원 91주년 전국한센가족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순천에서 특강을 한 뒤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대선주자들 유신, 5·18 등 격변기때 뭘했나

5·18 민중항쟁 27주기를 맞아 주요 대선 주자들이 광주를 찾고 있다. 5·18이 갖는 역사적 무게감을 가슴에 하는 대목이다. 한국현대사에서 5·18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4·19, 10월 유신, 부마항쟁, 6월 항쟁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명박 5·18때 중동 건설현장에
박근혜 10월 유신때 서강대 3년
김근태 수감중에 6월 항쟁 맞아
손학규 유신때 수배 도피생활
한명숙 5·18때 광주교도소 수감

◇1972년 10월 유신=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3학년,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해 1학년을 다닐 때였다. 서울대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군대에 갔으나 1972년 3월 제대, 또 다시 학생 운동을 하고 있었다. 손 전 지사와 경기도 같은 반 친구였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서울대를 졸업한 이후에 재야 운동에 뛰어났다가 유신 선포 당시에는 서울대 내 라운모사건 등으로 수배를 받고 도피생활 중이었다.

여성운동의 대모격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재야 여성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고려대를 졸업한 이후 현대건설에 재직 중이었다.

◇5·18 민중항쟁=한명숙 전 총리는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1979년 크리스천아카데미 여성 분야 간사로 활동하다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총소리와 헬기 소리가 들렸지만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 나중에 학살 사실을 알고 난 뒤 한달 동안 울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던 김근태 전 의장은 신군부의 수배령을 피해 서울 근교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손학규 전 지사는 1980년 1월 영국으로 유학을 가 5·18 당시 국내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과 관련, 계엄사령부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민주화의 꿈이 실현

됐다고 생각해 유학을 결심한 것이다.

1978년부터 MBC 기자생활을 시작한 정동영 전 의장은 1980년 당시 기자로서 광주 현장을 직접 취재하려 했으나 신군부의 검열에 의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천정배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한 뒤 당시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우수한 연수원 성적에도 불구하고, 1981년에 '군사독재 처하'라는 이유로 검·판사 임용을 스스로 거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5·18 당시 영남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전 대표는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12·12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실상 집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차 중동 건설붐'이 거셴던 당시 현대건설 최고 사령탑으로 중동 건설 현장에 주로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김근태 전 의장은 1985년 민중학원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돼 있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시위 현장에서 전투경찰들에게 붙은 카네이션 달아주기 운동을 주도하는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정동영 전 의장은 MBC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천정배 의원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민변'(88년 5월 창립) 창립의 기틀을 마련하던 중이었다.

손학규 전 지사는 1988년 귀국을 앞두고 영국에서 막바지 공부를 계속하던 중이었다.

이명박 전 시장은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며 대만을 필리핀위원회(KOC) 상임위원을 맡고 있었으며, 박근혜 전 대표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교 이사장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립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먼지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신맛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용각산 쿨 TV-CF

